

# '골 가뭄' 조규성 vs '득점왕' 주민규... 황선홍호 원톱 경쟁 결과는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과 2연전

21일·26일... 주전 공격수 자리 놓고 선의의 경쟁 예상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조규성(미트윌란)이 부진한 가운데,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된 프로축구 K리그 득점왕 출신의 주민규(울산 HD)가 주전 경쟁에 도전장을 내민다.

임시로 A대표팀 사령탑을 겸임하기로 한 황선홍 23세(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A대표팀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3월 A매치 대비 훈련을 시작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경질로 소방수 역할을 맡은 황 감독은 3월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만 책임진다.

태국과의 첫 경기인 3차전은 2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후 태국과의 4차전 경기는 26일 오후 9시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스타디움에서 원정으로 치러진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

승 탈락과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충돌 등으로 흔들리는 대표팀 분위기 반전에야 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주전 공격수 경쟁도 관심이다.

조규성은 파울루 벤투(포르투갈) 감독에서 클린스만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뀌는 사이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이전 핵심 골잡이였던 황의조(알라야스포르)가 불법촬영 혐의로 대표팀 승선이 불발된 이후에는 선발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조규성은 아시안컵에서 부진했고, 백업이었던 오현규(셀틱)도 기대 이하에 그쳤다.

이에 황 감독은 이번 3월 A매치 명단에서 오현규를 대신해 K리그 득점왕 출신인 주민규를 뽑았다. 조규성과 주민규의 경쟁이 예상된다. 소속팀에서 보인 경기력으로는 주민규가 우위에 있다.

조규성은 지난 12월 라르네스FC와의 리그 경기(1-0 승)에서 선발 출격했지만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며 침묵했다.

지난해 12월5일 비보르전(5-1 승) 이후 필드골이 없는 조규성은 세트피스까지 확대해서 봐도 이전과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르후스전(3-2 승)에서 나온 페널티킥 득점 이후 라르네스전까지 두 경기 연속으로 침묵했다.

반면 주민규는 지난달 15일부터 페널티킥 1골을 포함해 필드 2득점까지 총 3골을 기록 중이다.

주민규를 뽑은 황 감독도 "축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득점력은 또 다른 영역"이라며 "3년간 리그에서 50골 이상 넣은 선수는 지금 전무하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며 큰 기대를 보였다.

다만 경험이라는 변수가 있다. 1990년생인 주민규가 1998년생의 조규성보다 프로 경험은 더 많지만, A매치를 37경기 소화해 9골을 넣어 대표팀이 익숙한 조규성과 달리 국가대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낮은 환경이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성과 주민규는 지난 2022시즌 K리그에서 득점왕을 놓고 경쟁한 바 있다. 당시 전북 현대 소속이었던 두 선수는 나란히 17골을 넣었으나, 출전 경기 수와 시간이 더 적었던 조규



성이 득점왕에 올랐다.

그때 조규성에 밀려던 주민규가 이번 3월 A매치에서 주전 경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한 차례 주민규를 누른 바 있는 조규성이 또 경쟁에서 승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

## "배트 컨트롤 좋더라" 류현진 극찬 받은 KIA 김도영



한화 이글스에 복귀한 류현진(37)이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도영(21)에 대해 첫

"최고 좌완투수 상대해 영광"

대결 느낌을 밝혔다. 배트컨트롤이 좋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도영은 최고의 좌완투수를 상대해 영광이라는 마음도 전했다.

류현진은 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KIA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다. 복귀 이후 첫 대외 실전 경기였다. 1회초 1사후 이우성에게 우익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를 맞고 김도영에게 초구 직구를 던지다 중전직시타를 내주고 첫 실점했다.

이날 류현진은 김도영과의 승부에서 첫 타석 중전안타에 이어 3회 2사후 대결에서도 2루수 직선타를 허용했다. 김도영이 절묘한 배트컨트롤로 모두 정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인지 류현진은 경기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특별히 김도영의 타격을 언급했다.

류현진은 "김도영을 다음타석에서 삼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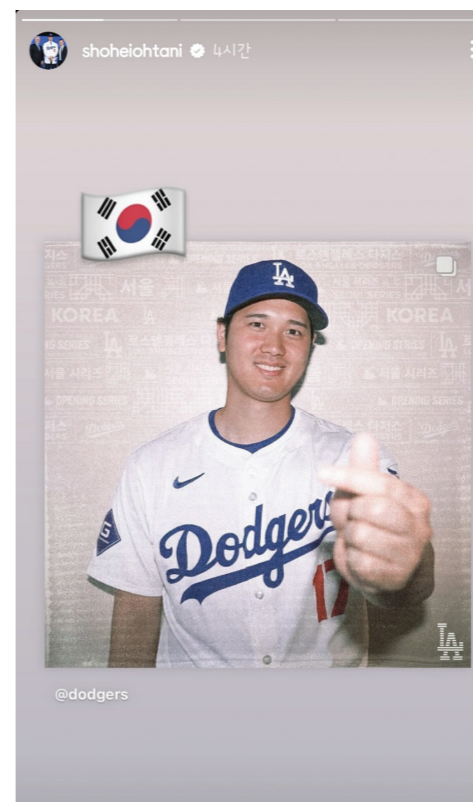
을 잡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예전처럼 스피드를 계속 조절하는 상황은 아니다. 첫 타석은 가운데 실투를 던져 안타를 맞았다. 두번째 타석도 배트 컨트롤이 좋더라"며 칭찬했다. 자신있게 자신의 투구를 직시타와 정타로 연결시키는 김도영이 눈에 띈 것이었다.

경기후 김도영도 "첫 타석 들어가기전에 공을 많이 보려고 생각했는데 잔스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타격을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나와 기쁘고, 우리나라 최고 좌완투수랑 상대를 해서 영광이었다"며 감격했다. 이어 "두번째 타석에서는 최대한 공을 많이 보려고 했다. 다양한 구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규 시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류현진 선배의 모든 구종이 완벽했던 거 같다. 특히 제구력이 워낙 뛰어나고, 빠른공이 구속에 비해 힘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값진 경험을 한 거 같다"고 말했다.

## 'MLB 서울 시리즈' 앞둔 LA 다저스 오타니, 손가락 하트·태극기 인사

2012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방한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인스타그램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달아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진=오타니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로 방한하는 일본인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손가락 하트'로 한국 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타니는 13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에 한국식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한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상단에는 태극기 이모티콘을 달았다.

곧 만나게 될 한국 팬들에 보낸 인사인 셈이다.

오타니가 속한 다저스는 오는 20~2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024 MLB 개막 시리즈인 서울 시리즈를 치른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MLB 정규시즌 경기다.

오타니는 선수단과 함께 15일 입국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고, 17일에는 키움 히어로즈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다. 18일 야구대표팀과 한 차례 연습경기를 더 치른 뒤 서울 시리즈에 돌입하게 된다.

오타니는 MLB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다. 일본프로야구(NPB)를 거쳐 2018년 빅리그에 입성한 그는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양쪽 모두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2018년 아메리칸 리그(AL) 신인상을 거머쥔 그는 2021년에 이어 2023년에도 만장일치로 AL 최우수선수(MVP)를 거머쥐었다.

빅리그 통산 성적은 투수로 86경기 38승 19패 평균자책점 3.01, 타자로 716경기 타율 0.274, 171홈런 437타점 428득점 86도루다.

지난해 말 LA 에인절스를 떠나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192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어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떨쳤다.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오타니는 고척돔에서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받은 팔꿈치 수술 여파로 올해는 마운드에 서지 않고 타격만 소화한다.

오타니는 과거에도 한국을 찾은 바 있다. 2012년 9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일본 야구대표팀으로 출전했다.

##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앞둔 박지원 "하이클래스와 경쟁 환영"

쇼트트랙 월드컵 남자부 종합 우승자 박지원(서울시청)이 오는 15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세계선수권 개막을 앞두고 13일(한국시간) 공식 누리집에 박지원과 인터뷰 내용을 게재했다.

박지원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남자 1000m와 1500m를 석권하며 2관왕에 올랐다. 그는 "웬만 세션에 들어가면서 '오늘 내가 몸이 좋구나', '나는 이번에는 월드 챔피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이 많이 차 있었던 것 같다"며 "내가 당연히 최고에 올라서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들어갔던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박지원은 세계선수권처럼 세계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과 경쟁하는 무대를 즐긴다고



박지원은 "하이클래스들이 같이 모이면 그 안에서 더 하이 클래스들이 나올 수 있다"며 "하이클래스들과 경기를 하고 경쟁을 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승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지원은 "매번 똑같이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롭게 1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새롭다"며 "다음에는 또 어떤 다른 1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1등을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로봇 심판' 도입된 KBO리그 시범경기, 투구 추적 성공률 19경기 동안 99.9% 보였다

올해 KBO리그 시범경기에서 도입된 자동투구판정 시스템(ABS)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분위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ABS는 12일까지 시범경기 19경기 동안 99.9%의 투구 추적 성공률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로봇 심판'으로 불리는 ABS는 구장에 설치된 카메라로 투수의 공 궤적 등을 추적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시스템이다. 주심은 이어폰으로 이를 듣고 콜 사인을 낸다.

정규시즌 ABS 도입을 앞두고 시범경기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100%에 육박하는 투구 추적 성공률이 나온 것이다.

KBO는 "투구 추적이 실패한 사례는 중계와 이어 카메라가 이동 중 추적 범위를 침범해 투구 추적이 실패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날씨 변화, 이물질 난입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00% 트래킹 추적 성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적 실패 시 대응 매뉴얼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심판과 ABS 운영요원 교육을 해 경기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은 19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4.5건의 위반(경고)이 나왔다. 총 85건이며 투구 위반이 38건, 타자는 46건이었다.

특히 시범경기 첫날 39건, 2일차 21건, 3일차 16건, 4일차 9건의 위반이 발생, 경기가 진행될수록 위반 사례가 감소하는 등 선수단이 규정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 '광양 루니' 이종호, 은퇴... "행복한 선수 삶 보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광양 루니'라는 별명으로 활약했던 공격수 이종호(32)가 그라운드를 떠난다.

이종호는 지난 12일 자신의 개인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은퇴 소식을 전했다.

지난 시즌까지 K리그2 성남FC에서 활약했던 그는 성남을 포함해 여러 구단과 계약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이종호는 축구화를 벗기로 결정했다.

이종호는 "행복하고 즐거움이 가득했던 축구선수 생활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은퇴를 하려 한다"며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내가 필요한 곳에서 매진 가치를 간직이 크다면 그때는 내려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은퇴

배경을 알렸다.

이어 "행복한 축구선수의 삶을 보냈다. 팬들에게 기억될 만한 '광양루니', '이종호랑이' 등 여러 별명으로 사랑을 받았고 그 또한 선수 시절 내 자부심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전 드래곤즈에서 프로 무대를 밟은 이종호는 2019년 V-바렌 나가사키(일본) 임대 시절을 제외하곤 13년 동안 전북현대, 울산 HD 등 줄곧 K리그에서 활약했다.

K리그 통산 296경기에 출전해 68골26도움을 기록했으며, 201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과 2017년, 2021년 FA컵(현 코리아컵) 정상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